

벤투 없는 '벤투호', 포르투갈과 운명의 한판

역대 두 번째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가 감독 부재 속에서 운명의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3일 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리안트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2022 카타르월드컵 H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을 갖는다.

우루과이와 1차전에서 0-0로 비기며 기대를 모았던 벤투호는 지난달 28일 가나와 2차전에서 2-3으로 패하며 1위 패(승점 1), 조 3위로 처졌다.

각 조 상위 2개국에 주어지는 16강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선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9위의 강호 포르투갈을 잡아야 한다.

자력 진출은 불가능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같은 시간에 열리는 우루과이-가나의 경기 결과까지 봐야 한다.

포르투갈이 2승(승점 6)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할 가운데 가나(1승1패 승점 3), 한국, 우루과이(1무1패 승점 1)가 뒤를 잇고 있다.

포르투갈에 지나거나 비기면 바로 탈락이다. 벼랑 끝에서 피할 수 없는 일전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경기에서 한국은 감독 없이 전장에 나서야 한다. 벤투 감독이 가나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아 벤치에 앉을 수 없다.

벤투 감독은 가나와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마지막 코너킥 기회를 잡았지만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그대로 종료 휘슬을 분 것에 항의하다가 퇴장당했다.

세르지우 코스타 수석코치가 벤투 감독 대신 포르투갈전에서 벤치를 지킨다. 무선 통신을 통한 지휘가 불가능하고, 하프타임에도 벤투 감독은 라커룸에 들어갈 수 없다.

한국이 16강에 오르지 못하고 벤투 감독이 제계약하지 않는다면 가나와 2차전은 그의 고별전이 되는 셈이다.

특히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출신으로 이번 월드컵을 통해 조국과 대결을 기대했다.



파울루 벤투(왼쪽) 감독과 세르지우 코스타 수석코치가 지난 29일(현지시간) 오후 카타르 도하 알 메클라에 마련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2일 지정 카타르월드컵 H조 조별리그 최종전

세르지우 코스타 수석코치 체제로 경기 치러

벤투 감독 "좋은 상황 아니지만 한계 끌어 낼 것"

감독은 라커룸에 들어갈 수 없다. 한국이 16강에 오르지 못하고 벤투 감독이 제계약하지 않는다면 가나와 2차전은 그의 고

포르투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요 선수들을 잘 알고 있는 벤투 감독의 부재가 큰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벤투 감독은 한국 취재진을 만나 가나전 퇴장과 관련해 "먼저 우리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제가 팀을 도울 것이지만 어제 경기에선 감정이 좋지 않았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이런 모습을 보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포르투갈전에서) 벤치에 착석하지 못하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최적의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 해야 할 것들을 알기 때문에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며 "최대한 한계까지 보여줄 수 있도록 경기할 것이다. 경기를 통해서 좋은 팀 좋은 조적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본선에서 사령탑 없이 경기를 치른 건 1998 프랑스월드컵 벨기에와 조별리그 3차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차범근 감독은 멕시코, 네덜란드에 2연패를 당하며 대회 도중 자리에서 물러났다. 특히 네덜란드와 2차전에서 0-5로 대패한 게 뼈 아팠다. 김평석 코치가 대행으로 벨기에전을 치렀다.

한편 이미 조별리그 통과를 확정된 포르투갈은 조 1위를 위해 한국전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페르난도 산투스 포르투갈 감독은 "아직 조 1위를 달성하지 못했다. 1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2위를 차지할 경우, G조 1위가 유력한 브라질과 16강전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을 피하고 싶다는 뜻이다. /뉴시스

한국-가나 H조 2차전 매매체 "미친 경기"

디애슬레틱,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32경기 대상 '명승부' 순위서 4위로 선정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가 한국과 가나의 경기를 "미친 경기였다"며 이번 월드컵 명승부 4위로 선정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참가한 모든 대표팀이 최소 두 경기씩을 치른 가운데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조별리그 1, 2차전 32경기를 대상으로 '명승부' 순위를 매겼다.

매체는 지난달 28일 있었던 한국과 가나 H조 2차전 경기를 '명승부' 4위에 꼽았다.

매체는 경기를 두고 "미친 경기(crazy game)"라며 "양 팀은 측면 공간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다. 한국의 반격은 굉장했으며 무함마드 쿠두스의 두 번째 골은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매체는 "조던 아이유의 훌륭한 크로스로 가나는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이었고 한국은 김진수가 좋은 크로스를 올려 조규성의 두 번째 득점을 도왔다"고 전했다.

또 "마지막 로렌스 아티 지기(가나 골키퍼)의 선방으로 가나는 계속 앞서 나갔으며 모하메드 살리수는 9개의 클리어런스(공을 위험 지역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를 기록했다"며 이 경기를 '미친 게임'이라고 한 이유를 설명했다.

32경기 중 '명승부' 1위는 독일과 스페인의 '죽음의 E조' 2차전이었다. 결과는 1대1로 무승부였지만, 매체는 "기술적으로 믿기지 않는 경기였다"며 1위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죽음의 E조'라는 명성에 걸맞게 조별리그 E조는 '명승부' 3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8일 일본은 독일을 2대1로 꺾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명승부' 2위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1호' 대이변 사우디아라비아-아르헨티나전이 꼽혔다. 지난달 22일 사우디는 전 세계의 예상을 꺾고 강호 아르헨티나를 2-1로 이겼다.

한국과 우루과이의 H조 1차전은 총 32경기 중 25위에 올랐다. 매체는 "특정 없이 무승부로 끝났지만 매우 치열한 경기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가장 단조로운 경기로는 C조 멕시코-폴란드전이 선정됐다. 양 팀은 이렇다 할 공방 없이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뉴시스

태권도 꿈나무들의 기량 겨루기

김제시 '초등연맹 우수선수 선발·최강전, 전국 초등대회' 성료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열전에 들어갔던 '제2회 한국초등연맹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 전국 초등 학교태권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전라북도김제시 태권도협회가 주최(관)하고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후원하는 초등연맹의 마지막 전국대회로, 체급별 우수선수 선발전과 올해 초등연맹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이 겨루는 최강전 대회를 함께 진행했다.

도내 28팀과 도외 309팀 2,300여명의 전국 꿈나무 선수들과 대회 임원 및 지도자·선수·가족들이 대거 참여해, 엘리트 겨루기·폼새, 생활체육 겨루기·폼새 종목으로 진행된 대회는, 올해 김제에서 열린 전국 스포츠 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대회였다.

특히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에서는 대회 포상금으로 역대 최대인 1억원을 마련 연맹의 마지막 대회를 그 어느 대회보다 규모 있게 준비했고 그 결과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극대화한 대회로 개최할 수 있었다.

28일 열린 개회식에는 이승환 국기원 원로위원회 의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최권열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강석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고봉수 전라북도태권도협회 회장 등 많은 태권도 관련 내빈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했다.

최권열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은 대회사에서 "고향인 김제에서 연맹이 주최하는 마지막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한국 태권도의 큰 기둥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전국의 태권 꿈나무들에게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열전에 들어갔던 제2회 한국초등연맹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 전국 초등학교태권도대회 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도전과 희망을 전하는 대회가 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초등학교 태권도대회는 선수는 물론 지도자, 선수 가족들이 함께 지역을 찾게 되어 지역경제 효과

큰 대회로 올해부터 3년 연속 김제시 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히며, 이후에도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